

데스크 시각

유네스코 세계유산, 꺾어야 보배다



송기동  
예향부장

“입석대를 지날 때 안개가 자욱한 가운데 돌기둥이 우뚝 서 있는 모습을 보며 이곳이 도대체 무릉도원인가, 장가계인가 싶었죠.” 지난 5월 12일 무등산에 처음 오른, 전주에 사는 50대 김형중·이순덕 부부의 말이다. 새벽부터 비가 내린 탓에 안개와 구름 사이로 드러나는 절경을 온전히 보기는 힘들었지만, 이들은 ‘세계 지질공원’(Global Geopark)으로 인증을 받은 무등산에 왔다는 사실만으로도 감격스러웠다고 했다.

이날 지왕봉을 배경으로 설치된 특설 무대에서는 무등산권이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인증된 것을 축하하는 공연과 정상 개방 기념 행사가 펼쳐졌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곳은 날씨 속에서도 광주·담양·화순 등 3개 지역의 흙과 물을 합치는 합수·합토제와 화산 활동 퍼포먼스, 그리고 사물놀이패 비나리의 공연 등이 이어졌다. 행사 도중 비구름이 살짝 개

며 인왕봉이 모습을 드러내자 탐방객들은 모두가 탄성을 내질렀다. 신비롭게도 주상절리 중턱 군데군데에 철쭉이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었다.

세계 지질공원 된 무등산권

무등산권은 지난 4월에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인증되었다. 이로써 광주·전남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관련 목록은 더욱 두터워졌다. 이미 2000년에 ‘고창·화순·강화도의 고인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됐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는 판소리(2003년), 강강술래(2009년), 아리랑(2012년), 김장문화(2013년), 농악(2014년), 줄다리기(2015년) 등이 차례로 등재됐다.

그리고 2011년에 5·18민주화운동 기념물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지정됐고, 2012년에는 광주가 ‘세계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로 지정됐다. 천혜의 자연 경관과 의미 깊은 역사 유적, 미래의 문화 예술이 한곳에 집적돼 있는 모양새다. 또 지난 5월에 전통 사찰 네 곳(해남 대흥사, 통도사, 부석사, 범주사)이 세계유산 심사를 통과했고 6월에 바레인에서 열리는 세계유산 위원회에서 등재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무등산권 세계 지질공원의 범위는 무등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무등산을 중심으로 한 광주는 물론 담양·화순까지 광

범위하다. 서석대·입석대·광석대 주상절리와 덕산·지공 너덜, 화순 적벽, 서유리 공룡 화석지 등 23곳의 지질 명소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18 민주묘지, 담양 죽녹원·소쇄원, 화순 운주사 등 42곳의 역사문화자원을 모두 포괄한다.

흥미롭게도 주상절리와 공룡 발자국 화석, 고인돌, 운주사 석불은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 8700만~8500만 년 전, 무등산에서 세 차례 화산 폭발이 있었는데 주상절리는 이때 분출된 용암이 식으면서 형성된 결과물이다. 화순 서유리 공룡 발자국 화석은 무등산 화산이 폭발하던 중생대 백악기의 흔적이고, 고인돌과 운주사 석불 역시 화산재가 쌓여서 형성된 ‘응회암’으로 만들어졌다. 지구의 역사가 빼어난 자연 경관이나 문화유산 형태로 고스란히 새겨져 있는 셈이다.

무등산권이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인증되면서 ‘지오 투어리즘’(Geo Tourism)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천연의 지질 자원을 관광 상품으로 활용해 관광객을 유치하는 ‘지질(地質) 관광’이다. 원효사에서 출발해 광석대~입석대~서석대를 거쳐 원점으로 회귀하는 ‘지오트레일 1구간’과 중심사~도끼개~덕산너덜~원효사로 이어지는 ‘지오트레일 2구간’이 개설돼 있다.

광주는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 미디어아트 창의도시’이기도 하다. 현재 1

단계로 ‘미디어아트 플랫폼’이 문을 열었고, 2단계로 ‘미디어아트 융·복합센터’가 조성될 예정이다. 이렇게 보면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세계 유산과 인류 무형 문화유산, 세계 기록유산, 세계 지질공원 등은 북두머리에 든 구슬과 같다.

아무리 구슬이 많아도 꺾어야 보배가 된다. 지역적으로는 광주와 전남, 내용상으로는 미래 예술인 미디어 아트와 자연경관, 문화 관광 자원 등이 뒤섞여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요소들을 잘 꺾어 보면 타 지역에서 흉내 낼 수 없는 독특한 문화 상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남도의 역사와 문화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면서 관광 수익을 올려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

독특한 문화 관광 상품으로

찾아오는 누적 관광객 숫자에 집중하는 문화 관광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 주마간산(走馬看山)식으로 보고 가는 1만 명보다, 충분히 광주·전남의 문화 예술을 만끽하고 가는 1000명이 나을 수도 있다. 이제 이 지역을 찾는 이들이 유네스코 세계 유산과 무등산권 세계 지질공원 및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의 진수를 느낄 수 있도록, 각기 흩어져 있는 ‘구슬’들을 꺾어야 할 때다. /song@kwangju.co.kr

은펜칼럼

지방선거와 단임의 역설



강대석  
시인·행정학박사

6·13지방선거가 이제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선거 분위기가 예전처럼 뜨겁지 않다. 그것은 문재인 정부의 높은 국정 지지도와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국민적 관심이 온통 남북문제에 쏠린 가운데 특히 호남의 경우 광역단체장 선거는 ‘민주당 경선이 곧 본선’이라는 말처럼 경선이 끝남과 동시에 관심이 식은 분위기며, 기초단체장 선거 역시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분위기는 엇비슷해 보인다. 그러나 모든 선거가 그렇지만 지방선거는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우리의 삶과

직결된 지역 발전을 좌우하는 인물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거를 앞두고 과연 어떤 인물을 선택할 것인가 한 번쯤 생각지 않을 수 없다. 올해로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지 23년이 되었다. 현행법상 민선 단체장은 3선까지 연임이 가능하다. 햇수로 12년이다. 과연 단체장의 바람직한 재임 기간은 얼마 정도가 적당할까? 물론 정답은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3선 연임이 바람직할 수도 있고 2선 연임이나 단임이 좋을 수도 있다.

실례를 하나 들어보겠다. 지방자치제가 부활하기 이전만 해도 광주시민들이 시외로 점심을 먹으러 나갈 땐 주로 장성 지역으로 많이 갔었다. 비교적 접근성이 좋을뿐더러 장성댐 부근의 민물 때문탕이나 장성읍내의 용봉탕 등 장성 지역의 먹거리가 그대로 괜찮았다. 필자가 근무했던 금남로 시절 전남도청에서도 토요일 오전 근무가 끝나면 주로 장성 부근으로 나들이 갔던 기억이 많이 난다. 그때

까지만 해도 담양이나 화순은 광주와 인접한 지역이지만 장성에 비해 먹거리나 접근성 면에서 조금 뒤처진 편이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본격 시작되고 10여 년이 지나자 여건이 확 바뀌었다. 광주 시민들의 시외 점심 장소가 어느새 장성에서 담양과 화순으로 바뀐 것이다. 그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무엇보다 민선 초기 김모 장성군수의 3선 연임에 있었다. 그분은 재임 중 깨끗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클린 장성’을 주창하며 식당이나 모텔 등의 허가까지도 엄격히 처리했다. 그 기간이 무려 11년간(민선 1기는 3년)이었다.

그러나 담양과 화순은 달랐다. 두 지역은 군수가 매년 바뀌었다. 단임으로 끝나기도 하고 중간에 그만두기도 했다. 그만큼 장기적인 시책이나 원칙이 없었다. 따라서 음식점이나 숙박업소의 허가규제도 느슨했다. 그러자 광주의 돈 있는 투자자들이 인·허가가 쉽고 규제가 덜한 담양과 화순으로 몰렸다. 당시에는 불안정

한 군정으로 지탄을 받기도 했지만 단임의 역설이랄까 임기가 짧고 원칙이 없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었다. 그렇게 10여 년이 지나자 관광 지도가 자연스럽게 바뀌게 된 것이었다. 장성의 김 군수도 3선 연임을 하며 장성아카데미 등 잘 한 일도 많이 있었다. 그러나 그분이 추진한 ‘클린 장성’ 시책만 큼은 본래 취지와는 달리 관광 측면에서 볼 때 지역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이었다. 지금 장성과 담양은 지가는 물론 소득이나 일자리 등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날 것이다.

단체장들이 장기 연임할 때 가장 우려되는 것이 오만과 독선이다. 곧 지역 내 자기 이상의 권력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추진하는 시책은 모두 옳다는 식의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얼마 남지 않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체장의 장기 연임 문제에 대해서 혹 잠재된 부작용은 없는지 지역발전을 위해 다시 한 번 점검해 봐야 할 것이다.

기 고

‘적수성연(積水成淵)’의 장학기금



박치영  
(재)광주북구장학회 이사장

우리나라가 그간 이뤄낸 경제적 성장은 세계적으로 비교 대상을 찾기 어렵다. 6·25전쟁 직후 국민소득 45달러로 세계 최빈국에 속했던 우리나라는 60여 년 만에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을 눈앞에 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된 최빈국국이 유례없는 압축성장을 이뤄낼 수 있었던 이유로 다양한 요인을 꼽을 수 있겠지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훌륭한 인적 자원을 길러낸 우리나라 특유의 ‘높은 교육열’이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녀들의 학업을 위해 희생을 마다하지 않던 우리 부모 세대들의 사연은 어디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던 그 시대의 풍경과 같았다. 그것이 당연했고, 당연하게 인식되던 시절이었다.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어려웠던 시기에서 벗어나 비교적 나은 삶을 영위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어려운 환경에서 학업을 이어가는 학생들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며, 이런 학생들에게 장학금은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와 같다.

(재)광주북구장학회는 지난 2007년 10월 초 설립됐다. 당시 상대적으로 취약계층 비율이 높았던 북구는 장학회 설립이 더욱 절실하다고 판단했다. 물론 설립 초 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복지예산 지출 비중이 높은 북구 장정에 비춰봤을 때 거액의 장학기금 조성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송광운 북구청장의 장학기금 마련에 대한 의지는 확고했고 이심전심 이에 공감한 많은 북구 주민들이 발 벗고 나섰다. 주민들 사이에서 우리 아이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던 것이다. 출범 당시 장학기금 80여 원을 목표로 출발했던 북구 장학회는 5월 현재 70여 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다수의 소액 기탁자들이 힘을 모아 장학기금을 마련했다는 것은 우리 북구 공동체의 따뜻함을 보여주는 자랑이다.

고액의 소수 기탁자가 아닌, 다수의 평범한 주민들이 저마다의 사연에 마음을 담아 기탁금을 보내왔다. 지금까지 5만 3000여 명이 참여했는데, 이는 전체 북구 주민의 약 12%에 해당하는 숫자다.

4년 간 폐품 수집을 통해 모은 돼지 저금통을 기탁한 운암동 이윤복 씨의 사연과 두암동에서 불어빵 장사를 통해 얻은 수익금 일부를 매년 기탁하는 김병란·홍주는 모녀의 사연은 형편이 넉넉지 않음에도 주변을 먼저 생각한 따뜻한 사례로 기억된다.

그 밖에 많은 주민들이 떡국떡 판매, 동축제, 교복 나눔행사, 가래떡 판매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발생한 이익금을 기탁해왔다.

아름다운 기탁 행렬에 동참하는 것은 비단 어른들만의 몫은 아니었다. 장학회 설립 초기 문흥지구에 위치한 유치원 원생 150명이 고사리손으로 모금한 20만 원을 장학기금으로 써달라고 보내온 사연은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장학금의 가치를 더욱 빛내준 기특한 사연도 빼놓을 수 없다. 2015년 장학증서 대표 수여자였던 김수민 학생은 나눔과 베품을 실천하고자 이듬해 학업 도중 틈

틈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50만 원을 장학금으로 기탁했다.

이렇듯 돌아보면 기탁금에 배어 있는 사연 어느 하나 따듯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래서 그간 모인 장학기금은 우리 북구 공동체의 따뜻한 그 자체이기도 하다.

(재)광주북구장학회는 그동안 열 번의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고 해마다 장학금 규모를 늘려 10년간 1526명의 학생에게 총 13억 15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설립 당시의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명실공히 지역사회의 대표 장학기금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적수성연(積水成淵)’이라는 말이 있다. 한 방울씩의 물이 모여 연못을 이룬다는 뜻으로, 작은 것도 모이면 큰 것이 된다는 얘기다. 북구 장학회의 모습이 이렇듯 할 것이다. 결코 쉽지 않았지만 저마다의 사연을 담은 소중한 기탁금들이 모여 70여 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고 처음 목표했던 80여 원에도 성금 다가섰기 때문이다.

소액 기탁자들의 정성이 모여 조성된 기금이 북구의 미래를 위해,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의미 있는 역할을 하리라 굳게 믿으며 앞으로도 북구장학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을 희망해 본다.

社 說

전두환 꼼수 부리지 말고 광주서 재판받아라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3년 만에 광주에서 법의 심판대에 다시 서게 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서울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지난해 5·18을 애국한 회고록을 출간했다가 소송을 당하자 재판부 이송 신청을 한 뒤 기각당했음에도 또 다시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광주지법 등에 따르면 전 씨 측은 옛 광주지법 “고령에다 건강 문제로 광주까지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거나 “광주 법원에 관할이 없다”며 재판부 이송 신청을 냈다. 그는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 조비오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주장했다고 최근 재판에 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 씨 사건의 첫 공판은 오는 28일 광주에서 열릴 예정이다. 하지만 첫 재판 전에 이송 신청을 했기 때문에 재판이 열릴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형사 재판의 경우 관할은 법원이 직권으로 판

단하지만 범죄의 성질이 자방의 민심,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을 때 검사나 피고인이 관할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다시 재판부를 배당하게 되지만 기각하면 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

전 씨는 이미 지난해 회고록 소송과 관련 “광주는 5·18에 대한 지역 정서가 매우 강하다”며 재판 공정성을 위해 관할 법원을 서울로 옮겨 달라며 이송 신청을 했다가 기각당한 바 있다.

전 씨는 “광주 학살의 장본인”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지만 조직적인 애국과 조직으로 범법을 피해 왔다. 어 제 광주일보가 보도한 것처럼 전남 도청 앞 집단 발표 직전 보안사령관이었던 그가 광주에 왔었고 그 이후 발표 명령이 떨어졌다는 505보안대 관계자의 증언까지 나오고 있다. 더 이상 꼼수를 부리지 말고 광주 재판에 반드시 철저해 판의 경우 관할은 법원이 직권으로 판

제 식구 감씨는 방탄국회 부끄럽지도 않나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국회가 부결시키고 나서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무죄 추정과 불구속사 원칙을 지켜낸 동료 의원에 대해 감사하다”고 했다. 초록은 동색이요 가재는 게 편이라더니, 참 한심한 일이다.

표결에 참석한 의원 275명 중 홍 의원은 141명, 염 의원에 대해서 172명이 반대표를 행사함으로써 과반 찬성을 요하는 체포동의안 가결이 무산됐다. 이번 표결을 분석해 보면 한국당 113명의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야당과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도 20명 이상 부결에 가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권고적 가결 당론으로 안이하게 표결에 임한 민주당의 태도도 유감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지난달 4일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 접수된 후 의원은 정보통신업체로부터 8200만 원의 뇌물을 받고, 자신이 이사장인 사학재단의 교비 7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염 의원은 강

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수십 명의 지원자를 부당 채용하도록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채용 비리는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사안이다.

이들의 죄질은 보통 사람이라면 당연히 구속될 만큼 무겁다. 이런 사안을 두고 동료 의원의 체포를 막는 데 앞장선 한국당 의원들의 행위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여기에 동조한 일부 여당의 의원들도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권력의 부당한 압력에 굴하지 않고 소신껏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한 ‘불체포 특권’의 핵심이다. 범죄를 저질러도 제 식구이면 감싸 주려고 특권을 부여한 게 아니다.

이번 체포동의안 부결은 특권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국회가 주권자인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이다. 앞으로는 동료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특권 남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체포동의안 투표를 기명 투표로 바꾸는 작업도 필요하다.

無 等 鼓

1980년 5·18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 었다. 갑자기 휴교 조치가 내려졌고, 심심하던 차에 동네 친구들과 지금의 지하철 돌고개역 근처에 구경을 나왔다. 트럭이나 버스에 탄 시민군이 시가지로 들어오고 있었고, 시민들은 박수를 치며 이들을 반겼다. 일부는 음식이나 음료를 건네기도 했다.

시위대를 따라 금남로에 다다랐는데, 갑자기 등쪽에 불이 났다. 어머니였다. 난리 통에 갑자기 사라진 아들이 걱정이 나머지 찾아 나선 것이다. 그렇게 끌려가 며칠간 집 밖 구경은 하지 못했다. 밤마다 이불을 둘러쳐 새 나가는 불빛을 막았던 아버지는 계엄군이 진압을 마쳤다는 소식이 들리자 어렵사리 찍은 사진들을 서둘러 태우셨다.

이후 대학에 들어가 다시 5·18과 마주치고는 큰 충격을 받았다. 처참히 훼손된 사체의 사진, 사망자에 임신부는 아니라는 사실 등은 도저히 믿기 어려웠다. 여고생 집단 성폭행 등은 최근에서야 드러나고 있다. 그날의 증거와 증언들을 종합하면 계엄군은 제정신을 가진 사

람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만행을 광주에서 저지른 것이다.

38년이 지나지만 책임을 져야 할 자들은 여전히 변명과 책임 회피,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다. 5·18의 의미를 축소·왜곡·조작하며, 정당화하려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일부의 양심선언이 있기는 했지만, 광주 진압에 나선 대부분의 군인들도 사실을 회피하며 침묵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나치 전범을 70년 넘게 추적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하고 있다. 지

정된 나머지 찾아 나선 것이다. 그렇게 끌려가 며칠간 집 밖 구경은 하지 못했다. 밤마다 이불을 둘러쳐 새 나가는 불빛을 막았던 아버지는 계엄군이 진압을 마쳤다는 소식이 들리자 어렵사리 찍은 사진들을 서둘러 태우셨다.

이후 대학에 들어가 다시 5·18과 마주치고는 큰 충격을 받았다. 처참히 훼손된 사체의 사진, 사망자에 임신부는 아니라는 사실 등은 도저히 믿기 어려웠다. 여고생 집단 성폭행 등은 최근에서야 드러나고 있다. 그날의 증거와 증언들을 종합하면 계엄군은 제정신을 가진 사

로 기소하기도 했다. 이는 진실 규명과 함께 진심 어린 사과와 단죄만이 그릇된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독일 국민의 사고에 근간을 두고 있다. 김경호 민병 광주지부장 등의 노력으로 전두환이 조만간 다시 법정에서 고개를 드러내게 됐다. 오는 9월부터는 5·18 진상규명위원회가 본격 운영된다. 5·18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더없는 기회다. 관련 문서, 자료, 기해자 행적 등을 살살이 추적해 이번호에야말로 그 책임자들을 반드시 가라내고 단죄해야 할 것이다. /윤현석 정치부 부장chadol@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0-0195)
편집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회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사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